

한주라이트메탈, 비수기 영업손실 96% 개선...3Q 누적 흑자전환 성공

▶ 흑서기 생산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적자 폭 대폭 축소 (42억 원 → 1.7억 원)

<2025-11-12> 한주라이트메탈(대표이사 이용진, 198940)이 주조산업 최대 비수기인 3분기 흑서기에도 매출 651 억 원(전년 대비 12.1% 증가), 영업손실 1.7 억원(전년 대비 96% 개선)을 기록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12 일 밝혔다.

회사는 올해 3 분기(연결 기준) 매출액 651 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70 억 원) 증가, 영업손실은 1.7 억 원으로 전년 동기(42 억 원 적자) 대비 96% 개선되며 적자폭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3 분기 누적 기준 매출 2,004 억 원(전년 대비 9.0%↑), 영업이익 42 억 원 흑자를 달성하며, 전년 누적 적자 35 억 원에서 완전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세가 뚜렷이 입증된 셈이다. 이는 흑서기 높은 온·습도로 주조 불량률이 증가하고, 극한 더위로 설비 효율 및 생산성이 저하되는 계절적 악재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사 관계자는 "4 분기는 미국 내 자동차 관세 이슈 및 판매 감소로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예상돼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고환율 수혜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수익성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주라이트메탈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기교반 반응고 레오캐스팅' 기술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2,500 톤급 전용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경량차체 시제품 제작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차 및 AI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부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제품 양산 전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